

Declaration on the Oh Kil-Nam affair
by the Manag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Isang Yun Society*

For some time now, Isang Yun has become the target of heavy accusations by Korean-language media and on campaigners' banners. The *International Isang Yun Society* feels the urgent need to take a stand on this.

The root cause of the trouble is the so-called Oh-affair: The Southkorean economist Oh Kil-Nam, then resident in West-Germany, in 1985 had moved to North Korea of his own free will, taking along his wife and two daughters, aiming to build up a new livelihood there. Due to the permanent indoctrination, he was disillusioned and made off back to West-Germany via Copenhagen. Mr. Oh is now calling public attention to the fate of his family which had to remain in North Korea. So far all his efforts to reunite have failed.

Since his return to South Korea in May 1992 he has been claiming, that Isang Yun had talked him round into moving to North Korea. This is a false accusation, presumably brought up by political circles bent on defaming Isang Yun as an agent of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Isang Yun Society* points out, that already in May 1992, Isang Yun has convincingly rejected this accusation. He stated, that he got to know Mr. Oh personally only after his escape from North Korea, and then tried to help him in the following years.

Isang Yun always has made great efforts to further dialogue between all of his fellow countrymen. His name must not be misused for the ends of domestic political campaigns.

We therefore draw your attention to Yun's own statement made in 1992, and give a summary of it.

December 12, 2011

International Isang Yun Society

Managing Committee

[Isang Yun: "The Oh Kil-nam affair and I" \(autograph version, Korean\)](#)

[Isang Yun: "The Oh Kil-nam affair and I" \(content specification, English\)](#)

"오길남 사건" 리나

윤이상

최근 남한에서는 재석동 교포였던 오길남이 남한에 "재향명" 한데 대해 한국의 전보로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외국까지 전파되어 (미국의 힐레비 등등)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 윤이상 과 송두물 박사 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몇몇 언론기관에서는 나의 해명에관해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 왔으나 그때까를 나는 입원중에 있었으며 이것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베르린에는 교포수가 많으며 적어도 이 교포들에게라도 진실을 알려주기위해 나는 자침하여 성인회보 에 이 글을 실기를 원하게 되었다.

1. 나와 오길남의 관계

1977년 봄에 바드. 고티스베르그에서 한민련. 국제회의 때 나는 처음으로 오길남이란 인물을 면담체로 보았다. 그 뒤 그의 이름은 들은바 있어도 #가까히 만나 일을 없었다.

2. 그와의 인연관계

1986년 11월 어느날 귀국에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저는 오길남입니다. 이북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하였다. 나는 그가 이북에 간지를 전연 몰랐으며, 또 도망해 왔다는 사실도 보통것은 일이 아니라 놀라시 몰랐다. "제가 가족을 데리고 이북에 그럼 6개월 동안 혼자 도망해 왔습니다" 라고 하니 미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에 간혀 조사를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황했다. "선생님, 귀를 도와주세요. 귀 가족을 도와주세요." 하고 간원하면서 울었다. "저는 그곳 도망해 왔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우썸 거후라 그 후에 내가 이북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교포중 원로의 한사람으로 만들어졌던지 여러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으며, 그 가족

의 구출을 역설하였다. 그 후 몇차례 오에머네들끼리, ~~한국사관~~ 한국사관에게 이복형을 말하면 탄로날까봐 독일인 목사 한사람에게만 얘기하고 써냈다고 말하였다. 나는 나의 아내와 같이 그의 가족 구출에 노력하기를 시작하였다. 동백림주재 이복의 연락관을 찾아서 오의 가족의 석독위환의 불가능성을 타진하고 석독고포의 대북부의 의사가 그러나 본국에 고집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 사건을 ~~본국에~~ 협의차 본국에 가서 / 개월후에 돌아온 그 연락관은 "본국의 태도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오길남이 조국의 체면을 매우 손상시켰다"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 ^{상황} 몇번 있은후 나는 하노바에서 나의 음악회가 있을때 그곳에 살고 있는 오길남을 나의 호텔로 불렀다. 이때가 나는 그의 처지에 동정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 동안의 나의 이복과의 고집정리를 설명하고 나의 호주머니에서 그에게 생활비 브로르새 돈 두 주었다.

1987년 9월 매년 평양에서 열리는 "음악상 음악제"에 참석하 구라하의 귀명한 와국인 연주자와 평양에 갔을때 오길남 가족을 석독으로 돌려보내기위해 그곳의 최고 실무책임자와 단판을 하였다. 그때 그가 나에게

1. 오길남은 방물자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민이 되어 가족을 데리고 이산점을 크게 꾸려왔으므로 우리 법에서 다룰수 밖에 없다. (오는 그곳에서 차관대위를 받았다고 했다)
2. 그 후 미국 비밀경찰과 석독정보당국에 6개월 동안이나 추조를 받고 많은 우리나라 정보를 제공했다.
3. 그가 출국할때 모든것은 속이고 갔으며 쿠판리안 공항에서 그곳 경찰에게 그는 조선인민공화국의 간첩이라고 하였다.
4. 이삼과 같이 오씨는 우리나라의 법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응당 법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위신을 국제적으로 추락시켰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한 나라의 법을 대상으로
 드저히 나의 의사를 관철시킬수 없는 한계성을
 느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우선 인도적인 의미
 에서 그의 가족의 소식이라도 전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간신이 부인의 편지 한장을 벌이려 오씨를
 백길의 집에 불러 이상라같은 이북 양국의 태도를
 전달하고 부인의 편지를 주었다.

1990년 10월 나와 나의 아내는 민족통일중앙제
 를위하여 평양을 방문한다. 이것을 안 오길남은
 전화를 아내에게 눈물로 가족문제를 호소하였다.
 아내는 그에게 책임은질수 없지만 가족소식이
 라고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렀다. 그때
 나는 병으로 24시간 의사와 간호원의 호위아래
 산소호흡기를끼고 하루 세차례 링겔주사를
 맞으면서도 잠간잠간 회심사에 나타나곤 하였다.
 이런구경신없는 사이에 오길남의 가족의 면담
 을 요청하였으나 허사였다. 부득이 사진, 카세트
 녹음을 간신히 구하여 가지고 왔다. 나의 백길
 돌아온 날자는 병때문에 비행여행이 허락되지 않아
 평늘어졌다.

1991년 1월 중순 백길에 돌아온 우리부부는 곧 이기쁜
 소식을 오길남에게 전하기 위해 그를 우리집으로 불렀다.
 평 명쾌한 태도로 우리집에 들어온 그는 20여국 국지선물
 을 받은 그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간절하고
 확실한 소리, 두 딸이 나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도
 태연하였다. ~~옆에서 울음소리~~ 나의 아내의 태도에
 감동이 없었다. 그리고 가족사진을보고 「왜 아이들이
 못났는가」 하면서 히히적 웃었다 그리고 황실수설
 하면서 가족에대한 애절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그자리에서 동공함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가족찾는것은 관념이었습시다」고 잘라 말하였다.
 나는 그자리에서 흐름하였다. 그리고 다시내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며 ~~죽어~~ 죽어내리시되 하였다. 이것이
 그와 내 부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상의것은 나의 속일없는 진실의 권역이며, 남한 정보

기관이 나에게 책임을 돌린 사항들, 즉

1. 오가 이복갈 것을 적극 권했다
2. 오가 이복을 탈출한 뒤 다시 돌아갈 것을 ~~성수~~ 강요했다.
3. 오를 미국의 코람교섭이여 경저양동이면

가득을 몰살시키겠다고 하였다.
 따위는 절적으로 정치조작이며 이 이면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모략이 숨어
 있는 것이 짐작된다.

나는 불만된 민족의 비극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부러 나 자신이 모략과 막대한 선전에 시달려
 모고 있는 사람이기 에 내 능력이 다하는 때까지
 부당하게 고통에 배려 있어 있는 사람을 뺏아 도와
 왔다. 앞으로 나는 정의를 위하여, 민족의 강대
 를 위하여 내 힘이 필요할 때에는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Summary of Isang Yun's statement of May 1992

The text comes under the headline

The Oh Kil-Nam affair and I

by Isang Yun

In this text, written for *Han In Hoe Bo* (한인 회보, Magazine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Germany, edition from May 22, 1992), Isang Yun wrote that he and Song Du-Yul lately had come under heavy attack, from US-American TV stations, amongst others. He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so as to give the Korean readers the true facts of the matter:

1. He saw Oh Kil-Nam for the first time in 1977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bout democratisation and reunification of Korea, organized by the "Union of Oversea Koreans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chaired by Isang Yun) at Bad Godesberg. Later on, he occasionally heard Oh's name but did not meet him.

2. In November 1986, Yun received a phone call from Oh, who told him he had fled from North Korea. Yun was surprised, as to that moment he had no idea that Oh had gone to live in North Korea. Oh reported, that he had taken his family to North Korea, and that some months ago he made off to West Germany (via Copenhagen) without them. Consequently he was subject to intense interrogations by the US and West German secret services. Full of tears, Oh asked Yun to help him and his family. Unable to bear it any longer in North Korea, he had fled to West Germany on his own. Up to then, he had only taken a German pastor [Gerhard Breidenstein] into his confidence, informing him about having migrated to North Korea and now having made off again.

Isang Yun and his wife tried to help him by contacting an attaché at the Northkorean embassy in East-Berlin. They tried to find out – with due caution – whether a family reunion was feasible. A month later, the attaché told Yun, that such a solution was out of the question. Later, Yun met Oh after a concert night in Hanover, where the latter at that time lived in an asylum-seekers' home. He informed him of the outcome of his enquiry, then tried to give him some comfort by assuring that he would continue to help him and his family.

In September 1987, Yun attended the annual "Isang Yun Music Festival" at Pyongyang. There he spoke to a high-ranking party official about the matter. The latter declared, that

1. Oh was a Northkorean citizen and therefore subject to Northkorean legislation.
2. Oh had declared to border officials at Copenhagen airport, that in North Korea he had been trained to become an agent.
3. Oh had hence been interrogated by Westgerman and US intelligence officers, giving them lots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so becoming a traitor.
4. Oh now kept on damaging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republic.

In view of this rigid attitude displayed by the authorities, Yun felt rather helpless. He knew that his efforts for Oh and his family in North Korea were getting to the limits of his possibilities. All he could still do was ask the authorities for a sign of life by Oh's family. When in October 1990, Yun prepared to attend the "Music Festival for Reunification" at Pyongyang, Oh himself asked Yun to bring a sign of life from his family. In mid-January 1991, Oh came to visit Yun at his house in Berlin. Yun handed over some photographs and a recorded tape from Pyongyang. That was all Isang Yun could do for him.

Then in May 1992, Oh suddenly appeared in Seoul, and in a well-staged press conference at the airport he accused Yun that he in those days had persuaded him into migrating to North Korea, and that after his escape from North Korea he had tried to make him return there.

Isang Yun wrote his article immediately after having heard reports about that press conference, to reject this act of destructive defamation from Seoul, carefully arranged by the Southkorean secret service, with the help of Oh Kil-Nam.